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음 윤5월 7일) 제18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부영 임대료 인상,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 전주시, 불공정행위 신고키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 5%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 현실 철저히 외면한 것”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로록 정치권 등에 건의도 추진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맹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저리용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불가피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반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맹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의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최근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올린 부영주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건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준처럼 불가피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경우 서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내집 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문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시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도내 마을기업 행자부 통과

올 한해 추천 11곳... 신규 6곳 5000만원·2차 3000만원 지원

전북도는 2017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 추천한 11개소(신규 6, 2차 5)전체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의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선정 심사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 중 1차 시군을 통해 추천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도 심사를 거쳐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 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5천만원, 2차 년도 사업비 3천만원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며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밀컨설팅·맞춤형 교육·각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게 된다.

유희수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마을기업 발굴과 함께 보조금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사업개발 및 판로 지원 등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관창은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신규로 선정된 6개소 외 도내 총 10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三樂農政’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북한, 핵동결 선언 시 대화조건 성립”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이 최소한 추가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동결을 약속한다면 본격적인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공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전용기 안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라며 “중간에 여러가지 이행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증이 확실해질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북한이 행동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불평등 사회경제 연구포럼  
공정임금제도 도입 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불평등 사회경제 연구포럼(대표 정동영)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 현실과 공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사훈(KBS 탐사전문기자) 기사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55% 정도 수준이다. 대기업 하청은 다 단계로 임금 차별이 있다. 2차 하청업체 소속은 48%, 3차 하청업체 소속은 대기업 임금의 32% 정도를 받는다.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에서조차 너무 큰 격차가 있다”며 노동현장의 임금 격차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홍 기사는 “임금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니터링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정동영, 박주원, 최경환, 노용래, 신용현 국회의원, 건설노동자, 김성현 등이 참여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민주당 '문준호 제보 조작' 총공세  
5면 - '교사 성추행 논란 학교 엄정처벌'  
14면 - '여름나기에 도움 될 수 있도록'

2015~17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와일드한 옛 추억과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건강하고 맛있는 축제입니다.  
청정완주의 자연생태가 지닌 야생성을 온 몸으로 느끼고  
로컬푸드1번지 건강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